

침상 노인 환자복 디자인 제안에 관한 연구

이 연 순 (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의류패션전공 교수)

근래에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신체활동 부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노인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침상 노인 환자들은 일반환자들에 비해 노화에 따라 척추가 만곡하여 신장 및 길이 항목이 감소하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둘레 항목은 증가하는 체형적 특성이 있으며, 생리적으로는 호흡근, 내장기관 및 피부가 약화되고,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죽음에 대한 불안, 소외감,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며, 보행, 착·탈의, 식사, 배뇨, 목욕 등의 일상동작이 어려우며, 치매 등 정신적 결함을 수반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의 특징을 고려한 침상 노인 환자를 위한 환자복 개발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편리하고 착용감과 치료와 간호에 효율성을 높은 침상노인 환자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실태조사결과 및 문헌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침상노인환자복의 소재, 색상, 문양, 기본 구성, 디테일 등을 제안하고, 연구환자복은 한국남성 60대 이상의 평균 신체치수를 “중” 사이즈 치수로 제작하여, 착용실험을 통해서 착탈 용이성, 자세변경 수월성, 처치 편리성, 심미성, 쾌적성에 대해서, 기존환자복과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재는 면능직으로, 색상은 연청색(2.5B 1/8) 및 연분홍(2.5R 9/2) 2 종류로, 문양은 의료기관의 마크로 인식될 수 있는 원문양으로 각각 제안하였다.
2. 기본 형태는 오버올(overalls)로 설계하였으며, 디테일에서 목둘레선은 U자형으로, 소매는 돌맨형의 길이 9부로, 앞트임은 목앞점에서 하의 가랑이 아래쪽까지 연결하였으며, 용변처리와 엉덩이 근육주사 등의 편리성을 위해 뒤허리선에 별도의 트임을 주었으며, 트임 부위에는 줄스냅(gripper snap)으로 여미도록 설계하였다.
3. 치수는 국민체위조사 보고서에 의거, 한국 60대 이상 남자 평균치수를 “중” 사이즈로 하였으며, 여유분은 “loose”한 여유량을 주었고, 제도에서 상의부분은 클래식 셔츠 길원형을 기본으로 하여 뒤허리선 처짐을 두고, 소매는 어깨 경사각 10° 로 한 돌맨소매를 몸판에서 연결시켰으며, 하의부분은 슬랙스 원형을 기본으로 하여 밑위길이에 여유분을 두고 제도하였으며, 허리둘레선에서 연결하여 오버올 형으로 제작하였다.
4. 착용평가 결과, 연구환자복이 기존환자복에 비해 착탈 용이성, 자세변경 수월성, 심미성, 쾌적성에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처치 편리성에서는 유의한 차가 인정되지 않았다.